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9>

JCCT 2021-5-2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Marriage Migrant Women's Gender Role Attitude and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김혜숙*, 최은영**

Hye-Suk Kim*, Eun-Young Choi**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총점 4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 교육수준, 국적, 월평균소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연령, 교육수준, 국적, 초혼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성역할태도, 가정폭력, 인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degree of percept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domestic violence targeting marriage migrant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71 married migrant women residing in area J from October 4 to December 20, 2019. Data analysi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WIN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bject's gender role attitude was found to be an average of 2.05 points out of 4 points. The subject's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was an average of 2.02 out of 4 poi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role attitud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erms of domestic residence period, education level, nationality,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erms of age, education level, nationality, and whether they were marri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hoped that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and solving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laid through awareness education and publicity on domestic violence.

Key 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Gender role attitude, Domestic violence, Perception

*정회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월 3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28일

Received: January 3, 2021 / Revised: March 15, 2021

Accepted: March 28, 2021

*Corresponding Author: seraphinac@hanmail.net
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Korea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다문화 혼인은 23,600건이며, 이는 전체 혼인에서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경우는 17,700건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1], 국제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여성들의 이주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등장은 더 이상 한시적이고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한 흐름이며[3], 국제결혼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유지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4].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낯선 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시도하지만 결혼 성사 때부터 경제적인 거래, 짧은 교제기간,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 그리고 결혼 직후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와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5].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여성의 경우,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비교적 성평등적인 가족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6].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부부간의 성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부부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결혼에 대한 불만감을 고조함으로써 가족 붕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4].

성역할태도는 가족이나 사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남성우위와 역할분리를 선호하는 보수적 태도와 남녀평등과 역할공유를 선호하는 평등적 태도로 구분되어 연구된다. 기존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제비교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내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 혹은 다문화가족의 성역할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기울어졌다[7].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이질적 문화배경에서의 성장으로 성역할태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대가족 구성체계는 이주여성들

에게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8]. 실제로 국제결혼에서 국내결혼보다 역할불일치가 더 심하고 불행한 결혼은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련되었으며[9], 한국 남성이 가부장의 특권으로 행사하는 권위 의식이나 폭력, 무능력이 결혼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났다[10]. 그러므로 선행연구가 미비한 결혼이주 여성의 성역할태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관련변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대처능력은 상당히 취약하고 무력하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 가정폭력의 인식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는 다르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폭력이 행사되었을 때와 피해자의 인권과 결부될 때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유형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폭력유형이 함께 행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11].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을 만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일반 가정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내부 갈등쯤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12].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어소통의 한계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다른 일반 가정의 여성배우자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13].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개인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혼인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환경적 요인(남편의 직업유형, 월평균 가구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1-\beta$)=0.95, 효과크기= 0.2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21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예상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회수되지 못한 25부와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4부를 제외한 총 37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5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보조원 동석하에 대상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보조원 면접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 교육은 조사 원칙,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숙지와 설문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조사 상황별 대응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보조원별 응답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시켰으며 일관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역할태도

본 연구에서는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4]에서 조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Flood[15]이 개발한 도구를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6]에서 10문항으로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2$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역할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중도 거부 가능, 개인정보의 보호, 설문소요 시간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가 26.7%, 30~39세가 43.4%, 40~49세가 19.7%, 50세 이상이 10.2%를 차지하였고, 국내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26.1%, 5~10년 미만은 29.4%, 10~15년 미만이 30.2%, 15년 이상은 14.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이 22.6%, 대학교 이상 졸업 19.7%, 초등학교 졸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적은 베트남 42.9%, 중국 24.5%, 필리핀 15.1%, 캄보디아 10.5%, 태국 7.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상태는 54.4%가 미취업

상태였고,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1.9%가 미취업 상태였다.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취업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관리/일반/서비스 종사자 29.4%, 농어업직 17.5%, 기타 8.4%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31.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6%, 300만원~400만원 미만 18.6%, 100만원 미만 10.6%, 400만원 이상 11.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초혼 및 재혼 여부는 초혼이 86.3%로 나타났고, 결혼을 위해 58.0%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36점, '집

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13점,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11점,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03점,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94점,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92점,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83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동의하는 응답 비율('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가 45.8%로 남자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34.5%,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32.7%,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9.1%,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Table 1. Gender Role Attitude and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Gender role attitude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year)	20~29 ^a 30~39 ^b 40~49 ^c ≥50 ^d	99(26.7) 161(43.4) 73(19.7) 38(10.2)	1.98±0.67 2.10±0.76 2.00±0.69 2.05±0.73	0.71	.546	2.05±0.50 1.93±0.53 2.09±0.57 2.15±0.58	2.69	.046 b<d
Domestic period of stay (year)	< 5 ^a 5~10 ^b 10~15 ^c ≥15 ^d	97(26.1) 109(29.4) 112(30.2) 53(14.3)	1.96±0.70 2.09±0.75 2.20±0.72 1.78±0.65	4.53	.004 d<c	2.02±0.50 1.95±0.47 2.01±0.57 2.16±0.66	1.81	.14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a Middle school ^b High school ^c More college diploma ^d	42(11.3) 80(22.6) 176(47.4) 73(19.7)	2.36±0.78 2.18±0.69 1.99±0.71 1.84±0.72	6.19	<.001 d<a,b c,d<a	1.81±0.55 2.10±0.58 1.98±0.50 2.12±0.56	3.95	.009 a<b,d
Nationality	Cambodia ^a China ^b Philippines ^c Thailand ^d Vietnam ^e	39(10.5) 91(24.5) 56(15.1) 26(7.0) 159(42.9)	2.48±0.66 1.87±0.71 2.31±0.87 2.19±0.61 1.92±0.64	8.99	<.001 b<a,c e<a	1.65±0.69 2.10±0.55 1.67±0.49 2.45±0.71 2.11±0.58	19.40	<.001 a,c<b,d,e b,e<d
Husband's employment	Office/management/general/services Simple Labor Agriculture and fishing Unemployed Other	109(29.4) 159(42.9) 65(17.5) 7(1.9) 31(8.4)	2.05±0.75 2.02±0.73 2.12±0.74 2.29±0.73 1.95±0.62	0.52	.721	1.98±0.54 2.03±0.56 2.07±0.52 2.29±0.46 1.93±0.47	1.00	.409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a 100~200 ^b 200~300 ^c 300~400 ^d >400 ^e	39(10.6) 106(28.6) 115(31.0) 69(18.6) 42(11.3)	2.14±0.71 2.23±0.75 1.97±0.71 1.86±0.73 1.99±0.64	3.53	.008 a,b<e	2.00±0.67 1.93±0.56 2.07±0.51 2.06±0.48 2.06±0.53	1.17	.323
Marriage type	First marriage digamy	320(86.3) 51(13.7)	2.05±0.74 2.01±0.64	0.33	.743	1.99±0.55 2.17±0.46	-2.57	.012
Use of marriage companies	Used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companies Other	215(58.0) 156(42.0)	2.20±0.73 1.83±0.66	5.20	<.001	2.01±0.57 2.02±0.50	-0.21	.835

우선되어야 한다' 28.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6.2%,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4.2% 순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하여 가족 내 남편과 아내로서 요구되는 성역할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동의하는 응답 비율('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항목은 역코딩하여 산출한 값이며, 배우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표 2. 성역할태도
 Table 2. Gender Role Attitude

Categories	Not at all	Not so much	Slightly so	It really is	Mean(SD)
It is primarily the role of men to promote important things in society.	92 (24.8)	109 (29.4)	113 (30.5)	57 (15.4)	2.36(1.02)
Socially, men should be leaders.	117 (31.5)	133 (35.8)	86 (23.2)	35 (9.4)	2.11(0.96)
Sex should be led by a man.	121 (32.6)	139 (37.5)	91 (24.5)	20 (5.4)	2.03(0.89)
The housework is mainly done by the wife.	130 (35.0)	113 (30.5)	77 (20.8)	51 (13.7)	2.13(1.05)
The husband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economic decisions in the family.	147 (39.6)	127 (34.2)	70 (18.9)	27 (7.3)	1.94(0.94)
Whether a wife will have a job or not should follow the husband's wishes.	172 (46.4)	107 (28.8)	75 (20.2)	17 (4.6)	1.83(0.91)
For important decisions about children, the opinion of the husban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pinion of the wife.	161 (43.4)	106 (28.6)	77 (20.8)	27 (7.3)	1.92(0.96)
Total	2.05(0.73)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인식은 총점 4 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웠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2.97 점,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66점,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28점,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2.11점,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1.80점,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80점,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74점,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1.67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66점,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1.49점

67.1%이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6.6%,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2.4%로 절반 내외의 응답자가 여성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이 가정폭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축소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도 38.3%로 3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하는 태도('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보였다. 또한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4.2%,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4.2%,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22.7%,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2.1%,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18.6%,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13.2% 순으로 동의하는 태도('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보였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화가 너무 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연령($F=2.69, p=.046$), 교육수준($F=3.95, p=.009$), 국적($F=19.40, p<.001$), 초혼 여부($t=-2.57,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인식은 50세 이상이 30~39세인 대상자보다 높게

표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Table 3.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Categories	Not at all	Not so much	Slightly so	It really is	Mean(SD)
If you become too angry and lose control for a moment, you may be violent against your family.	194 (52.3)	87 (23.5)	62 (16.7)	28 (7.5)	1.80
You can forgive if you truly regret after committing domestic violence.	138 (37.2)	91 (24.5)	105 (28.3)	37 (10.0)	2.11
If a person abused as a child commits domestic violence, it can be forgiven.	208 (56.1)	94 (25.3)	53 (14.3)	16 (4.3)	1.67
Too much stress can lead to violence against family members.	231 (62.3)	58 (15.6)	60 (16.2)	22 (5.9)	1.66
Drinking a lot of alcohol can lead to violence against family members.	226 (60.9)	55 (14.8)	51 (13.7)	39 (10.5)	1.74
If a spouse is acting violently, it is correct to have the spouse leave the house.*	46 (12.4)	76 (20.5)	92 (24.8)	157 (42.3)	2.97
It'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women don't leave their violent spouses.	119 (32.1)	95 (25.6)	90 (24.3)	67 (18.1)	2.28
Most women can escape violent relationships if they really want.	103 (27.8)	58 (15.6)	73 (19.7)	137 (36.9)	2.66
Domestic violence is a personal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in the home.	192 (51.8)	95 (25.6)	50 (13.5)	34 (9.2)	1.80
Women must endure violent relationships to protect their families.	256 (69.0)	66 (17.8)	32 (8.6)	17 (4.6)	1.49
Total	2.02(0.54)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F=4.53, p=.004$), 교육수준($F=6.19, p<.001$), 국적($F=8.99, p<.001$), 월평균소득($F=3.53, p=.008$),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 여부($t=5.2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이 10~15년 미만인 15년 이상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국적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여성이 중국, 베트남 여성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00만원 이상보다, 결혼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

나타났고, 중학교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적이 중국, 태국 및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와 필리핀 여성보다, 재혼인 대상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최근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추세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바,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Seo와 Paik[4]의 연구에서의 평균은 2.62점으로 나타났고, Choi[17]의 연구에서 농촌여성들의 성역할태도는 4점 만점에 2.07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 교육수준, 국적, 월평균소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주여성의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가 비정통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연구[7]와 비슷한 결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형성했던 성역할태도는 결혼이주 후 살게 된 한국사회의 여러 환경 및 이들과 함께 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씩 영향을 받아 바뀌어 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역할태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Kong과 Oh[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고, Choi[17]와 Eun[7]의 연구에서도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이 낮은 학력의 이주여성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중국, 베트남 국적을 갖은 여성이 캄보디아와 필리핀 여성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 가운데 중국 출신 여성들의 성역할태도가 비정통적이었다는 Eun[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한번 결혼을 하면 평생 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일부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관과 일치하고 있다[18]. 그러나 중국출신 이주여성들은 1949년 신중국 건설이후의 양성평등 정책이 30년 이상 지속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중국의 양성평등정책이 여성들에게 가정 내 역할에 대해 남녀 구분을 전제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또한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은 평균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한국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남녀 간의 문화 차이 외에도 연령차이에 의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12], 출신 국가에 따른 가족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성역할태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Choi[17]의 연구에서도 연소득이 3001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평등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인식은 총점 4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50세 이상이 30~39세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국적이 중국, 태국, 베트남 여성이 캄보디아, 필리핀 여성보다, 재혼인 대상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는 어렵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이 갖고 있던 고유한 개인요인과 이주 후 경험하게 된 환경적·구조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12],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가정폭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11]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갈등이나 폭력 등에 대한 질적연구 및 이를 예방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Kim[19]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은 자신의 성역할태도보다는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부부갈등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성역할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특성만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으로, 차후에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의 성역할태도 도구, Flood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총점 4점 중 평균 2.05점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총점 4점 중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국내거주기간, 교육수준, 국적, 월평균소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연령, 교육수준, 국적, 초혼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Married migrant present condition. <http://www.index.go.kr>. 2020.
- [2] M. S. Song, K. M.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4, No. 2, pp.43-52, 2018.
- [3] J. B. Koo, "A Study on the Training Plan of Local Culture Promotion Personnel through the Migrant Women in Uljin-gu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186-198, 2019.
- [4] S. S. Seo, J Paik,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8, pp.301-310, 2017.
- [5] K. S. Ko, "Experience of foreign wives who have been abused by their family", *Victim Studies*. Vol. 18, No. 1, pp.229-259, 2010.
- [6] M. H. Kong, S. J. Oh, " Its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ocial Support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 Focused on Vietnamese & Filipino woman-Korean man Couples in Busan", *Family and Culture*. Vol. 22, No. 2, pp.95-120, 2010.
- [7] K. S. Eun, "Relation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and Educational Attainment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Family and Culture*. Vol. 31, No. 1, pp.109-139, 2019.
- [8] E. J. Lee, "Influences of Cultural sensitivity, Couple communication, and Sex-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Husbands of Foreign Wives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for them",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6, No. 4, pp.45-71, 2010.
- [9] E. A. Imamura, "Strangers in a Strange land: Coping with marginality in International Marriage", *Journal of Comparaative Family Studies*. Vol. 21, pp.171-191, 1990.
- [10] D. H. Sul, et al.,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Survey and Health and Welfare Support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nl.go.kr>. 2005.
- [11] H. S. Park, " A Study on the Causes and Perceptions of Domestic Viol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8, pp.611-620, 2019.
- [12] Y. Cho,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Against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n Multi-Cultural Family ", *Victim Studies*. Vol. 18, No. 1, pp.159-183, 2010.
- [13] M. Abraham, " Isolation as a Form of Marital Violence: The South Asian Immigrant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Vol. 9, No. 3, pp.221-236, 2000.
- [14]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3 Domestic Violence Survey Researc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s://www.kwdi.re.kr>. 2013.
- [15] M. Flood, "Measures for The assessment of Dimens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Melbourne: Australian Research Center in Sex, Health and Society, La Trobe University, 2008.
- [16]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6 Domestic Violence Survey Researc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s://www.kwdi.re.kr>. 2016.
- [17] K. R. Choi, " Sex-Role Attitude, Conjugal Status Level and Status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Living in Korea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ome Management*. Vol. 19, No. 3, pp.53-72, 2001.
- [18] M. J. Kim, "Filipino Wife of Korean Family Change and Local Community", *Feminism Research*. Vol. 7, No. 2, pp.213-248, 2007.
- [19] O. N.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3, pp.63-106, 2006.